

니시오카 가문 주택

니시오카 가문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자기(磁器) 교역을 하여 해운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니시오카 가문의 안채는 1852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완공까지 거의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안채는 이구라즈쿠리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 사이로 삼각형 벽이 보이는 히라이리(平入, 지붕 용마루와 평행한 면에 출입구가 있는 구조) 양식을 한 기와지붕이 특징입니다. 정면 현관은 건물의 앞쪽과 뒤쪽에 모두 배치되어 있고, 큰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개의 현관이 있는 이유는 앞쪽의 구나가사키 가도를 통해서 방문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뒤쪽의 강을 통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자리 복도는 판자 하나로 만들어져 있고 옷칠이 칠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자리 복도의 '화살 깃 무늬 천장'과 교창의 창살, 후스마에(맹장지에 그린 그림) 및 토끼와 부채 모양의 '못 가리개 장식' 등 호화로운 디자인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있는 8개의 방은 고상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안채, 창고, 별채로 이루어진 넓은 부지는 니시오카 가문의 막대한 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방에는 무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상인들은 무기를 소지한 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부를 과시하기 위해 니시오카 가문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4년 2월 5일에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